

배포 일시	2022. 7. 29.(금)		
담당 부서 <총괄>	철도국 철도정책과	책임자	과장 박병석 (044-201-3938)
		담당자	서기관 나정재 (044-201-3940)
			사무관 박선영 (044-201-3949)
보도일시	2022년 8월 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31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국토부 GTX 조기 추진에 총력, 『GTX 추진단』 발족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난 해소를 위한 GTX 확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5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“GTX 추진단”을 발족하여, 8월 첫째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.
  - 이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의 “수도권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GTX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”는 지시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. 전담인력 확충에 따라 GTX 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.
  - 추진단은 철도국장이 직접 추진단장을 맡아 GTX 사업을 총괄 진두지휘하고, 기존 GTX A·B·C 사업을 추진하는 “사업팀”과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GTX 연장 및 신설을 전담하는 “기획팀”으로 구성된다.
- “GTX 사업팀”은 본 궤도에 올라와있는 GTX A·B·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, 특히 '24년에 최초 준공예정인 A노선의 개통일정을 앞당기는데 매진할 계획이다.

-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A노선(운정~동탄)은 당초 ' 24년 6월 개통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자,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.
- 또한, B,C노선도 민간사업자 선정, 협상, 실시설계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속도를 낼 계획이다. C노선(덕정~수원)은 내년에 첫 삽을 떠 ' 28년에 개통을, B노선(송도~마석)은 ' 24년에 공사를 시작해 ' 30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- “GTX 기획팀”은 A·B·C 노선 연장과 D·E·F 노선 신설 등 GTX망 확충사업을 전담한다. 추진단 내에서 “사업팀”과 원활하게 교류하며 기존사업에 있었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, 일정을 단축한다는 전략이다.
- 이미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“GTX 확충 기획연구”을 착수하여,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노선을 검토 중이며, 민간제안사업 추진 등 조기 추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.
- “GTX 추진단” 설치를 통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것은 물론이고,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GTX와 관련한 국민과의 소통창구를 일원화하면서 국민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국민들의 GTX 조기 추진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GTX 추진단을 특별히 발족하였다”면서, “추진단은 국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GTX 확충에 최대한 속도를 내달라”고 지시하였다.
- 아울러, “국토부는 GTX 조기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,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”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.